

행운의 120m 샷 이글 '77타 악몽' 깬 함정우

공동 1위 역전 위기... 지난해 악몽 상기 그림 같은 13번 홀 샷 이글로 승기 굳혀 "상금으로 부모님 해외여행" 효심 가득

'무관'의 신인왕 함정우(25)가 행운의 '샷 이글'을 앞세워 마침내 생애 첫 우승 트로피를 품었다. 지난해 정상 문턱에서 미끄러졌던 바로 그 대회, 그 장소에서 값진 설욕전을 펼쳤다. 함정우는 19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하늘 코스(파 71·7040야드)에서 열린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SK텔레콤 오픈(총상금 12억 원·우승상금 2억5000만 원) 최종라운드에서 13언더파 271타를 기록하며 추격자들을 모두 제쳤다.

함정우는 지난해 같은 곳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우승을 눈앞에서 놓쳤다. 3라운드까지 공동 선두를 달렸지만 마지막 날 5타를 잃으면서 공동 15위까지 추락했다.

당시 아픔을 아직 잊지 못한 함정우는 1년 뒤 다시 챔피언으로 임한 올해 대회에서 '77'이 적힌 빨간색 셔츠를 입고 나왔다. 지난해 최종라운드에서의 77타 악몽을 깨보자는 마음에서였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결정적인 우승 특효약이 됐다.

이날 거친 비바람이 영종도를 몰아치면서 우승권 경쟁자들은 쉽게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함정우는 전반 이븐파를 기록했고, 3라운드 공동선두였던 이수민(25)은

오히려 1타를 잃었다. 그 사이 무관의 데뷔 16년차 정지호(35)가 5번 홀(파5) 이글을 엮어 3타를 줄이면서 함정우와 함께 11언더파 공동선두가 됐다. 지난해 악몽이 다시금 떠오른 함정우는 심기일전했다. 추격을 받던 11번 홀(파4)에서 장거리 버디 퍼트를 성공시킨 뒤 파5 13번 홀에서 세 번째 샷을 컵으로 집어넣으며 우승을 사실상 예약했다. 약 120m 거리를 남겨둔 상황에서 피칭 위치 샷이 몇 차례 그린을 튕기며 깃대를 지나치더니 백스핀이 걸려 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여기서 승기를 잡은 함정우는 파3 16번 홀에서 보기를 기록했지만, 끝까지 리드를 지켰다.

챔피언 퍼트 직후 아이처럼 환호한 함정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수줍어했다. 이어 "그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는데 이에 보답한 느낌이라 기분이 좋다. 특히 오늘 우승 상금은 지난해 벌어들인 총상금(약 1억2400만 원)보다도 많다. 이 돈으로 부모님에게 해외 여행이라는 선물을 드리고 싶다"고 활짝 웃었다.

함정우는 "경기 중간 문득 지난해 생각이 났다. 이리다가 다시 잘못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들었다. 그러나 11번 홀 버디로 분위기를 반전시켰고, 13번 홀 샷 이글로 안도가 됐다. 특히 공이 컵으로 들어갈 때는 답살이 돌더라.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면서 "첫 우승을 한 만큼 이제 한국으로 우승을 해보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인천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함정우(가운데)가 19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하늘 코스에서 열린 KPGA 코리아 투어 SK텔레콤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가족의 축하를 받고 있다. 그는 프로 전향 이후 첫 번째 우승트로피를 손에 넣었다. 사진제공 | SK텔레콤

전국대학동아리유도대회 여주대, 남대부 단체 우승

경희대학교 유도부가 주최하고 경희대학교 유도동문회가 주관한 제14회 경희대학교총장기 전국대학동아리유도대회가 18일 경기도 용인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선승관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남대부 단체전과 남대부, 여대부 체급별 개인전으로 진행됐으며 남대부 단체전 234명, 남대부 개인전 3체급 120명, 여대부 개인전 3체급 48명 등 총 402명이 참가해 열띤 대결을 펼쳤다.

대회는 내외 규빈 및 선수단 소개, 개회 선언, 우승기 반납, 경기 순으로 진행됐다.

박영국 경희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대학체육이 지켜오고 있는 순수 아마추어리즘은 자유롭고 순수한 겨루기를 통해 상호간 체력과 기술의 향상을 함께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경기 결과 남대부 단체전에서는 여주대가 우승을 차지했다.

●부문별 입상(자) 명단(1~공동3위순)

- ▲남대부 단체전=여주대, 용인대, 김포대·연세대 ▲남자 -66kg=최재령(서울대), 유영민(국민대), 진승원(용인대)·이수민(서울대) ▲남자 -81kg=우탁근(아주대), 황미륵(아주대), 안상준(김포대)·서호성(중부대) ▲남자 +81kg=이병두(한남대), 홍서우(서울대), 윤진원(경향대)·서승찬(한양대) ▲여자 -52kg=박은미(중앙대), 박재진(서울대), 차민경(중부대)·김승아(광운대) ▲여자 -57kg=김세림(국민대), 오유진(국민대), 이우림(인하대)·김수빈(중앙대) ▲여자 +57kg=윤성은(아주대), 지수현(국민대), 박채린(경희대)·김소희(중부대) ▲장려상 경향대, 모범상 중앙대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이민영, JLPGA 통산 4번째 우승

이민영(27·한화큐셀)이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통산 4승째를 기록했다. 이민영은 19일 일본 후쿠오카 컨트리클럽(파72·6292야드)에서 열린 JLPGA 투어 호켄노 마도구치 레이디스(총상금 1억2000만 엔·약 13억 원)에서 10언더파 206타를 기록하고 정상을 밟았다. 지난해 3월 다ikin 오키드 레이디스 이후 약 1년 만의 우승으로 통산 4번째 트로피를 수확했다. 우승상금은 약 2억3000만 원이다.

공동 선두로 최종라운드를 출발한 이민영은 이날 버디 5개와 보기 2개를 기록해 3타를 줄이면서 선두를 내주지 않았다. 신지애(31)와 우에다 모모코(33·일본)가 이민영을 바짝 쫓았지만 1타 차이의 벽을 넘지 못했다. 2015년 신장암 수술을 받고 필드로 돌아와 2017년 일본으로 건너간 이민영은 데뷔 시즌 2승과 지난해 1승에 이어 올해 첫 승을 올리면서 3년 연속 우승이라는 값진 기록도 써냈다. 올 시즌 11개 대회를 소화한 JLPGA 투어에서의 한국 선수 우승은 4승으로 늘어났다. 고훈준 기자

편집 | 고훈준 기자 ico@donga.com

'돌아온 탱크' 최경주의 아주 특별한 생일

유망주들 직접 만든 케이크 선물에 '울컥' 오랜만에 국내 무대... "체력은 문제 없어"

한국골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최경주(49·SK텔레콤)가 안방과도 같은 대회에서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필드 위에선 후배들과 마음껏 실력을 겨뤘고, 무대 뒤에선 자신의 뒤를 따르는 유망주들로부터 감동의 생일선물을 받았다.

최경주는 19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서 끝난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 투어 SK텔레콤 오픈 최종라운드 직후 "날짜로는 오늘이 생일이지만 파티는 어제 열렸다. 최경주재단 소속 학생 30여명이 직접 케이크를 만들 어왔더라. 얼마나 근사하던지 눈물이 날 뻔했다"며 활짝 웃었다. 나홀만의 피로를 호소하던 49살 '키다리 아저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 순간이었다.

최경주는 통산 3승을 거둔 SK텔레콤 오픈에서 올해 12회 연속 컵 통과라는 의미 있는 기록을 작성했다. 대회 출전을 위해 오랜만에 한국을 찾은 최경주는



최경주(오른쪽)가 18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에서 최경주재단 소속 학생 30여명과 생일 파티를 가졌다. 학생들이 직접 만든 케이크를 들고 기뻐하는 최경주. 사진 제공 | 최경주재단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됐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어제 오늘 스코어가 헛갈릴 정도"라며 멋쩍게 웃었다. 이어 "지난해 체중 감량을 한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에너지가 유지되더라. 비거리도 크게 줄지 않았다. 앞으로도 계속 체력을 보강해서 다음 시즌도 잘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골프 대부는 앞으로 후배들을 위한 마음을 드러냈다. 최경주는 "PGA 투어는 5년 이상 활약한 선수가 45세가 넘으면 연금을 지급한다. 중계권 수입 등으로 생긴 재원을 선수들을 위해 쓴다. 나는 45세가 넘었지만 현역생활을 하고 있어 55세부터 수령하는 것으로 연장해놓았다. 한국에도 선수의 은퇴 후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후배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인천 |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세계선수권 2연패' 심재영 "목표는 올림픽 금"

태권도 여자 46kg급 절대강자 도쿄올림픽 새 체급 적응 속세

심재영(24·고양시청)은 한국여자태권도 경량급의 차세대 주자다. 2017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여자 46kg급에서 금메달을 따냈을 때만 해도 깜짝 스타로 평가받았던 그가 이제는 2020도쿄올림픽이라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2019 맨체스터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선수권 2연패에 성공한 덕분에 기대치도 올라갔다.

심재영은 무주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직후부터 도쿄올림픽을 향한 욕심을 숨기지 않았다. 2016년 11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세계태권도연맹(WT) 경기 규칙을 완벽하게 접목해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연결 동작이 강점인 심재영은 설 틈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공격적인 성향을 띤다. 의미 없이 발만 드는 행위가 곧바로 감점으로 이어지는 지금의 규칙을 고려하면, 심재영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회 여자 46kg급 결승에서 마홀라 모멘자테흐(이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을 때도 장점을 심본 발휘했다.



심재영

아픔도 있었다. 무주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친 이듬해(2018) 5월 열린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에서 강보라에게 결승에서 패한 탓에 메이저 종합국제대회 무대 데뷔를 뒤로 미뤄야 했다. 겉으로는 크게 티를 내지 않고 다음 시즌을 준비했지만, "나는 욕심이 많다"고 외쳤던 심재영이 느꼈던 좌절감은 엄청났다. 무주세계선수권대회 우승 직후 아시안게임을 바라보며 피땀 흘린 결실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도쿄올림픽 출전에 대한 열망은 더욱 커졌다. 이번 대회 우승으로 랭킹포인트 120점을 챙기며 경쟁에서 한

발 앞섰다. '올림픽'이라는 세 글자는 심재영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다.

향후 과제는 올림픽 체급에 적응하는 것이다. 여자부 기준으로 총 8개의 체급(46·49·53·57·62·67·73kg·73kg 이상)이 존재하는 세계선수권대회와 달리 올림픽 체급은 49·57·67kg·67kg 이상이 전부다. 심재영은 49kg급에 도전해야 한다. 2016리우올림픽에서 김소희가 금메달을 안겼던 체급으로 세계랭킹 1위 파니파 옹파타나킷(태국), 우정위(중국) 티어나 보그다노비치(세르비아) 등 강자들이 즐비하다.

심재영은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것 같다. 도쿄올림픽에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